

## 질병관리청·지자체 협력 통한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 강화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으로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 참여기관 확대 등 감시체계 강화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윤정환)는 질병관리청·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참여 확대를 통해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2개 기관(인천, 전남)→ 5개 기관(인천, 전남, 충남, 전북, 경북)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사업』은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주관으로 권역질병대응센터 및 국립검역소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해양환경에서 분리되는 병원성 비브리오균(*Vibrio cholerae*, *Vibrio vulnificus*, *Vibrio parahaemolyticus*)의 발생양상 파악 및 특성 분석 등 역학적 기초자료를 대국민 홍보 등에 활용하고 있다.

\* 참여기관: 5개 권역질병대응센터, 11개 국립검역소, 2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윤정환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은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사업 운영 강화를 위해 비브리오패혈증균의 월평균 분리율 변화에 따른 감시기간 및 감시지점 확대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업무협력 활성화를 통한 참여기관 확대 등 협업기관 간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감시사업 결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브리오패혈증균은 6월부터 증가하여 10월까지 높은 검출률을 보이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6.1. 0시)됨에 따라 더운 여름철에 바닷가를 찾는 여행객 증가로 물놀이 등 해수와 접촉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를 함께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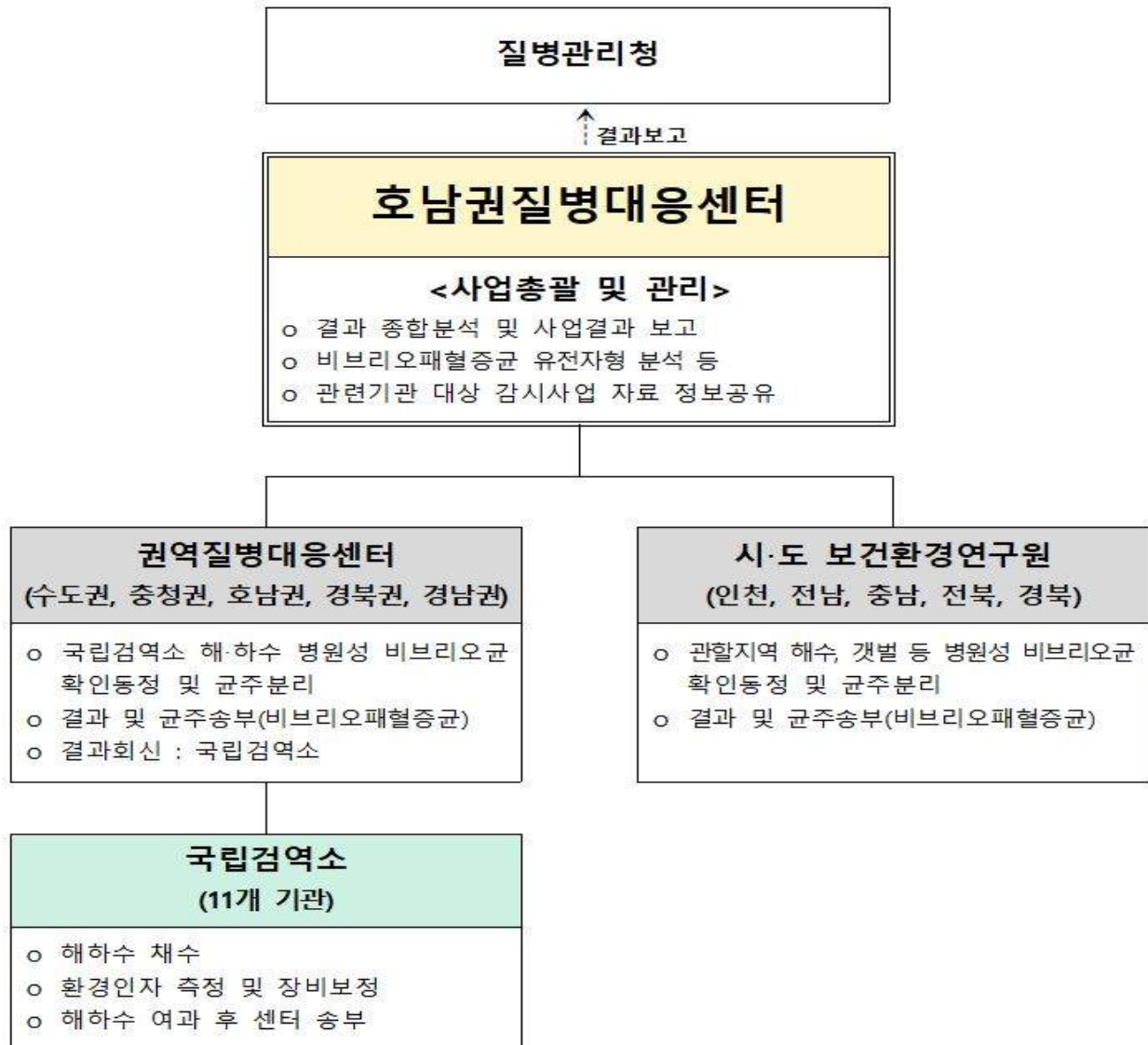
- <붙임> 1.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사업 개요  
2.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및 개요

담당 <총괄>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육교 (062-221-4140)
		담당자	주무관	이현정 (062-221-4142)
협조 기관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한영선 (032-440-7981)
		담당자	연구사	김명덕 (032-440-7983)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 질병조사팀	책임자	팀 장	정상미 (041-635-6820)
		담당자	연구사	박인용 (041-635-6964)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신종감염병과	책임자	과 장	노경우 (063-290-5630)
		담당자	연구사	박혜진 (063-290-5633)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	책임자	과 장	박 속 (061-240-5210)
		담당자	연구사	나혜영 (061-240-5214)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미정 (054-339-8230)
		담당자	연구사	김민혁 (054-339-8231)

## 붙임 1

##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팀 감시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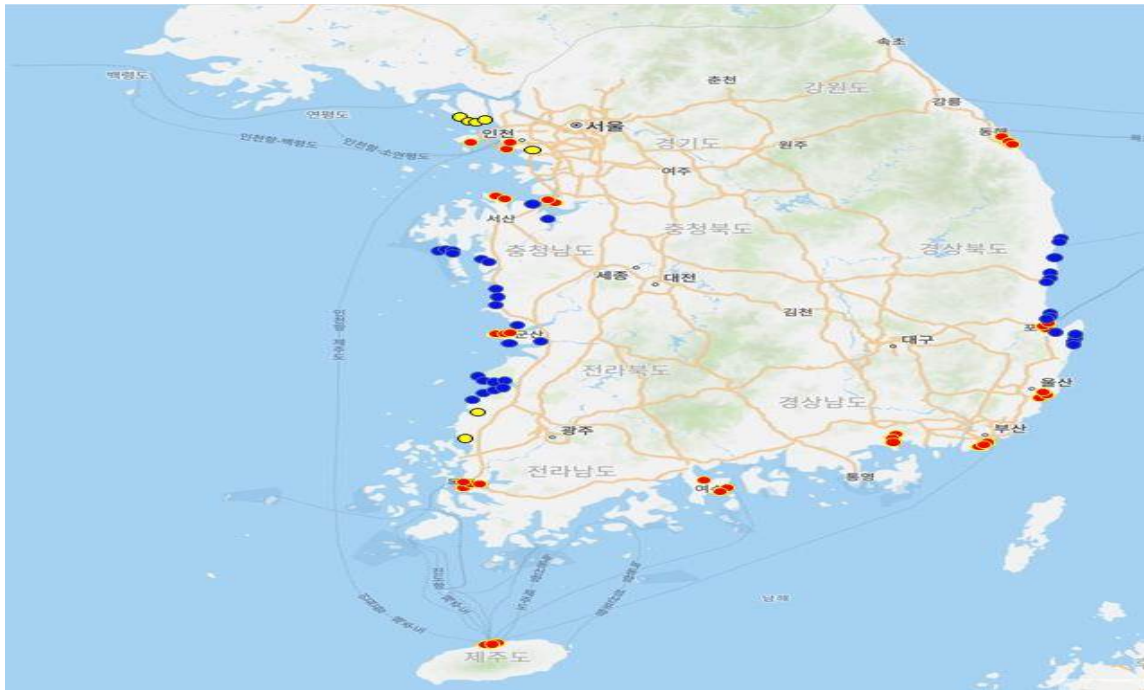
### □ 수행 체계도



### □ 협업기관

구 분	기 관
주관기관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권역질병대응센터 (5개 기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국립검역소 (11개 기관)	인천, 동해, 군산, 평택, 목포, 여수, 제주, 포항, 울산, 부산, 마산
보건환경연구원 (5개 기관)	인천, 전남, <u>충남</u> , 전북,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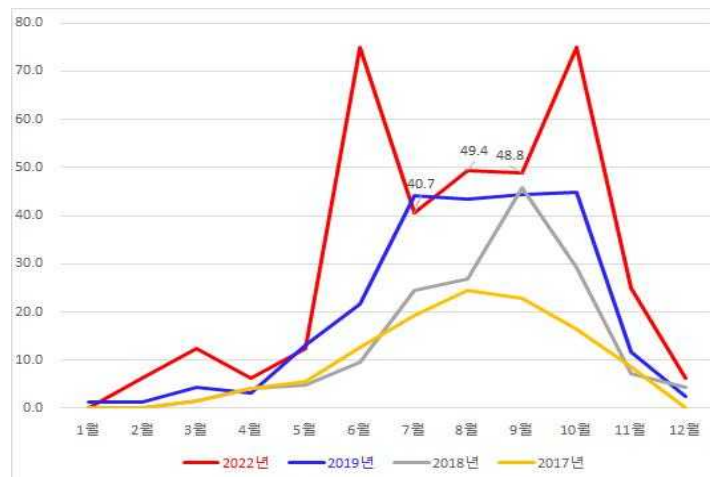
## □ 기관별 감시지점



<전국감시지점>

구 분	지 점
감시지점 (94지점)	해·하수 80지점, 갯벌 14지점
지점표시현황	<div>● 국립검역소 (11개 기관)</div> <div>● 보건환경연구원 (인천, 전남)</div> <div>● 확대기관 (충남, 전북, 경북)</div>

## □ 최근 3년간 비브리오패혈증균 월평균 분리율(검출률) 변화



최근 3년간 비브리오패혈증균 월별 분리율 비교

	2022년	2019년	2018년	2017년
1월	0.0	1.4	0.0	0.0
2월	6.3	1.4	0.0	0.0
3월	12.5	4.3	1.4	1.4
4월	6.3	3.1	4.1	4.1
5월	12.5	13.1	4.8	5.5
6월	75.0	21.7	9.7	12.8
7월	40.7	44.1	24.5	19.3
8월	49.4	43.5	26.8	24.5
9월	48.8	44.5	45.9	22.8
10월	75.0	44.8	29.3	16.6
11월	25.0	11.7	7.1	8.6
12월	6.3	2.5	4.3	0.0

- 3년간('17년~'19년) 비브리오 패혈증균 분리율은 6월부터 증가하여 7월~10월에 높은 분리율을 보이며, '22년 분리율(46.3%)은 3년간('17년~'19년) 7월~9월 분리율(32.9%) 대비 13.4% 증가

\* 참고: '22년 1월~6월, 10월~12월은 보건환경연구원 2개기관의 결과임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 ☑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다.
-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
- ☑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한다.
  -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처리한다.
    - \* 조개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 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 이상 더 요리해야 함
  - 어패류를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
  -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

구 분	비브리오패혈증
정 의	□ 비브리오 패혈균( <i>Vibrio vulnificus</i> )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
전파 경로	□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 □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
예 방	□ 일반적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패류 충분히 익혀 먹기(특히, 고위험군 환자)</li> <li>-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 바닷물에 접촉 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li> </ul>
주 의	□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 질환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알코올의존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환자, 장기이식환자, 면역결핍 환자</li> </ul> </li> </ul>